

[論文]

# 正倉院 소장품의 內容과 性格

—正倉院 소장품 旅具 序說—

崔 在 錫

(高麗大 名譽教授)

차 례

머리말

I. 正倉院의 由來와 管理

II. 正倉院 소장품의 內容과 增減

III. 正倉院 소장품에 대한 日本政府의 태도와 製作國 확인법의 모색

맺는말

## 머 리 말

日本 東大寺 正倉院 소장품이 어느나라에서 製作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는 먼저 그 소장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성격 그리고 그 소장품에 대한 日本政府의 태도 등의 고찰이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先行研究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그 소장품의 제작국의 확인은 물론이러니와 材質·樣式·技法·모티브 등의 美術品 자체의 고찰이나 A 나라에서 B 나라로 傳播되었다는 문화전파의 연구도 옳바르게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소장품의 製作國에 대한 고찰은 그 전체물품의 次元과 구체적인 물품 하나하나에 대한 次元의 두가지 側面에서의 연구가 행해져야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前者를 1次的 視角, 後者를 2次的 視角이라할 때 1次的 視角만을 고집하여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2次的인 視角에만 매달려서도 옳바른 접근이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생각 된다.

### I. 正倉院의 由來와 管理

正倉院 소장품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正倉院과 동대사의 유래와 그 관리상황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알려져있는 바와같이 正倉院은 원래 東大寺의 창고였다. 따라서 東大寺에 대하여서도 잠시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743년 近江의 紫香樂(滋賀縣甲賀郡信樂町)에서 시작된 盧舍那佛(東大寺本尊佛) 조립의 工事は 745년 平城京으로 옮겨지고 東大寺의 전신인 東山の 鍾寺에서 再開되었다. 749년 10월에 東大寺 盧舍那佛의 주조가 끝나자 계속하여 東大寺 大佛殿의 조영이 시작되었다. 752년 4월 9일 奈良 日本은 新羅사람(使節·高僧들)을 초청하여 點眼式을 거행하였다. 東大寺는 天皇 聖武의 發願寺인 동시에 新羅에서 도입한 華嚴宗의 교리로 운영되는 사찰이므로 대화엄사라 부르기도 하였다. 新羅 유학을 마친 日本 僧侶들이 東大寺뿐만 아니라 日本佛敎界의 지도자층을 주성하는 상황이었다.<sup>1)</sup>

8세기초 正倉院(Miyake)이라 불리는 倉庫는 日本 전국에 무수히 산재해 있었으며, 正倉·御寶·三寶는 버 등의 稅金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시하는 보통명사였다. 正倉院이란 稅 등을 간수하는 正倉의 집의 의미이며, 특정의 하나의 창고를 가르키는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正倉의 집합체를 가르키는 말이었다. 오늘날 正倉院이라 불리워지는 창고는 奈良時代에는 雙倉(二室의 창고)이라 표기되었다. 적어도 756년 6월에는 正倉院의 전신인 雙倉이 존재했으며 「獻物帳」의 寶物·武器·藥物은 모두 이 雙倉의 北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奈良時代의 大寺는 많은 寺地·封戶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寺地·封戶로부터 上納하는 쌀이나 麻布·絹布 등의 세금을 간수하는 창고가 필요하였다.<sup>2)</sup>

正倉院에 현존하는 보물 9천여점의 대부분은 東大寺에서 사용한 것이거나 그 밖에 가진자들로부터의 獻納物을 後世에 이르러 正倉院 보물로 이남한 것이고, 王室에서 이관된 보물은 光明王太后의 奉獻物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正倉院 시작이래 正倉院의 보물이 王室財産으로 간주된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明治時代에 들어와 급속히 正倉院 보고가 王室財産化로 추진되게 되었다. 正倉院 보물이 文化財 취급을 받지 않고 宮內廳에 소속되어 「御物」(王室財産의 의미)이 되었으며 그 시초부터 明治時代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王室財産이었던 일은 없는데도 그것이 文化財管理를 담당하는 文化廳의 관할이 아니라 日本 王室관계의 행정을 담당하는 宮內廳의 관할이 되어 변칙적인 사태를 계속하고 있다. 江戸時代 末期까지 太政官이 그 관리를 담당하는 형식이 변하지 않았는데 明治政府가 되어 정부로 그 관할 기관이 바뀌어졌다. 1875년 明治政府는 正倉院의 소장품(보물)의 관리를 內務省博物館의 관할로 한 후 다음과 같이 여러번 관할기관이 바뀌어졌다.

1871(明治 4년)에 正倉院 보물을 內務省 박물관의 관할로 하였다.

1881(明治 14년) 寶物類……農商務省의 소관

圖書·文書類……內務省 소관

1) 崔在錫, 統一新羅의 日本政治指導, 『韓國學報』 71, 1993.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1993 수록)

2) 由水常雄, 『正倉院の謎』 1978, pp. 99~102.

- 正倉院건물관리……宮內省 소관
- 1884(明治 17년) 正倉院 및 보물……宮內省 전속
- 1885(明治 18년) 正倉院 및 보물……宮內省 圖書寮로 이관
- 1890(明治 23년) 正倉院 寶庫를 왕실의 世傳재산으로 결정
- 1900(明治 33년) 帝國박물관을 帝室박물관으로 改稱
- 1908(明治 41년) 東京帝室박물관이 正倉院 사무를 통관
- 1947(昭和 22년) 正倉院이 帝室박물관의 주관을 떠나 다시 宮內府 圖書寮 소관이 되고  
경비는 皇宮警察本部가 직접 담당
- 1956(昭和 31년) 正倉院을 宮內廳의 부속기관으로 독립  
帝室박물관은 文部省의 관할하에 들어감<sup>3)</sup>

오늘날 正倉院의 보물이 日本 宮內廳의 소관하에 놓여 1년에 한번 奈良 국립박물관에서 보물이 일부분씩 전시 관람이 되는 때 이외에는 엄격하게 일반인의 보물 참관을 통제하고 참관 자격을 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특정 보물의 참관이나 조사 혹은 특수한 사진자료의 입수를 필요로 하더라도 그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다.<sup>4)</sup>

## II. 正倉院 소장품의 內容과 增減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正倉院 소장품은 756년 6월 21일의 「國家珍寶帳」을 위시한 5권의 「獻物帳」의 물품으로 시작하였으므로 편의상 이 물품의 내용부터 알아보려고 한다.

### A. 國家珍寶帳(756년 6월 21일)

御袈裟	9領	
9條刺納樹皮色袈裟	1領	
7條褐色紬袈裟	1領	
7條織成樹皮色袈裟	1領	
7條刺納樹皮色袈裟	6領	
納漆皮箱	3合	
納碧綾幘袷	3良	
納綠縹縹袋		
赤漆文櫬木厨子	1口	

3) 앞책, p.271, 272, 273.

4) 앞책, p.274.

雜集	1卷
孝經	1卷
頭陀寺碑文并杜家立成	1卷
樂毅論	1卷
裏衣香	2袋
納白葛箱	
書法(王羲之草書)	20卷(내용생략)
裏衣香	3袋
納銀平脫箱	
納高麗錦袋	
金銀作小刀	1口
御刀子	6口
十合鞘御刀子	1口
三合鞘御刀子	1口
小三合水角鞘御刀子	1口
水角鞘御刀子	1口
犀角鞘御刀子	1口
金銅作唐刀子	1口
唐刀子	1口
班犀偃鼠皮御帶	1條
班貝鞞鞞御帶	1條
赤紫黑紫緞緩御帶	1條
御帶(納訶 黎勒)	1口
紅地錦御帶	1口(納麝香)
牙笏	1枚
通天阿笏	1枚
大魚骨笏	1枚
紅牙撥笏尺	2枚
綠牙撥笏尺	2枚
白牙尺	2枚
紅牙撥鏤笑子	100枚(納白柳箱)
犀角杯	2口
雙 6頭 116具 1雙 未造了 2具(納所皮箱)	
雜玉雙 6子 69 (水精 35, 瑠碧 35, 黃琉璃 20, 藍色琉璃 20,	

淺緣綠琉璃 15, 緣綠琉璃 15, 白碁子 14, 黑碁子 15,  
納小皮箱)

貝玦	12 箇
犀角奩	1 奩(納念珠)
各種念珠(種類省略)	9 具
百索縷	1 卷(畫軸)
玉尺八	1 管
尺八	1 管
樺纏尺八	1 管
刻彫尺八	1 管
赤漆欅木廚子	1 口
犀角	1 口
白犀角	1 枚
犀角	1 枚
斑犀角	1 枚
白石鎮子	16 箇
銀平脫合子	4 合(各納碁子)
檜木倭琴	2 張(納臈縷袋 緣綠裏)
銀平文琴	1 張(納紫綾袋 緋綾裏)
漆琴	1 張(納紫綾袋 緋綾裏)
螺鈿紫檀琵琶	1 面(納紫綾袋 淺緣綠臈縷裏)
紫檀琵琶	1 面(納紫綾袋 緋綾裏)
螺鈿紫檀 5 鉉琵琶	1 面(納紫綾袋 淺緣綠臈縷裏)
螺鈿紫檀阮咸	1 面(納紫綾袋 淺緣綠臈縷裏)
桐木箏	1 張(納臈縷袋 緣裏)
楸木瑟	1 張(納臈縷袋 緣裏)
甘竹肅	1 口(納紫綾袋 緋綾裏)
吳竹笙	1 口(納紫綾袋 淺緣綠臈縷裏)
吳竹竿	1 口(納紫綾袋 緋綾裏)
雕石橫笛	1 口(納高麗錦袋 淺緣綠臈縷裏)
雕石尺八	1 口(納高麗錦袋 淺緣綾裏)
金鏤新羅琴	1 張(納臈縷袋 緣裏)
金鏤新羅琴	2 張(納紫地錦袋 緋裏)
木畫紫檀碁局	1 具(納金銀龜甲籠)

木畫紫檀雙六局	1 具 (納紫緣籐蔭龕)
1. 陽寶劍	1 口
陰寶劍	1 口 (紅地錦袋 緋綾裏)
金銅莊大刀	8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金銀鈿莊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淺綠綾裏)
5. 金銅顛莊大刀	1 口 (緋地錦袋 緋綾裏)
銀莊鈿作大刀	1 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金銀鈿作唐樣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金莊鈿作唐樣大刀	1 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金銀鈿作唐大刀	1 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10. 金銅莊唐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金銅莊唐大刀	1 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金銀莊唐樣大刀	1 口 (白地高麗錦袋 淺緋綾纈裏)
金銀莊唐樣大刀	1 口 (緣地祕錦袋 緋綾裏)
金莊唐樣大刀	1 口 (緋地祕錦袋 緋綾裏)
15. 銀莊考慮樣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金銅莊唐樣大刀	1 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金漆銅作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金莊考慮樣大刀	1 口 (紫系絡結袋)
金銅莊劍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20. 金銅作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金漆銅作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金銅作大刀	1 口 (緋地錦袋 緋綾裏)
同	1 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銀作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25. 銀銅作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銅漆作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金金漆作大刀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 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金漆銀銅作大刀	1 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30. 金漆銅作大度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 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 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口 (緋地錦袋 緋綾裏)
35.	同	1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口 (緋地錦袋 緋綾裏)
40.	黒作大度	1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金漆銅作大刀	1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横刀	1口 (黒紫紬袋 緋綾裏)
	黒作懸佩刀	1口 (紫地錦袋 緋綾裏)
	寶莊懸佩刀	1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45.	金銅莊懸佩刀	1口 (緋地錦袋 緋綾裏)
	金銀作懸佩刀	1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銀作懸佩刀	1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同	1口 (緋地錦袋 緋綾裏)
	金漆銅作懸佩刀	1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50.	同	1口 (緋地錦袋 緋綾裏)
	金銀作懸佩刀	1口 (白地高麗錦袋 緋綾裏)
	黒作大刀	1口 (白橡臈纈袋)
	杖刀	1口 (紫皮裏袋尾 緋綾裏)
	杖刀	1口 (緣地高麗錦袋 緋綾裏)
	御弓	100張
	梓御弓	84張
	槻御弓	6張
	阿惠御弓	1張
	檀御弓	8張
	肥美御弓	1張
	別色御弓	3張
	御箭	100具 (靱 4具, 胡祿 96具)
	御甲	100領
	短甲	10具
	桂甲	90領
	金淺香	1村
	御鏡	20面

1. 8角鏡	1面 (8角 櫥匣)
8角鏡	1面 ( 同 )
8角鏡	1面 ( 同 )
8角鏡	1面 ( 漆皮箱 )
5. 8角鏡	1面 ( 同 )
8角鏡	1面 ( 同 )
8角鏡	1面 ( 同 )
8角鏡	1面 ( 同 )
8角鏡	1面 ( 同 )
10. 8角鏡	1面 ( 同 )
8角鏡	1面 ( 同 )
圓鏡	1面 (8角櫥匣)
圓鏡	1面 ( 漆皮箱 )
圓鏡	1面 ( 漆木匣 )
15. 圓鏡	1面 ( 漆皮箱 )
圓鏡	1面 ( 同 )
圓鏡	1面 ( 同 )
圓鏡	1面 ( 同 )
圓鏡	1面 ( 同 )
圓鏡	1面 ( 同 )
漆胡瓶	1口
御屏風	100疊
山水畫屏風 1具 兩疊	12扇 (揩布袋)
國圖屏風	6扇 (緣綾幙)
大唐勤政樓前觀樂圖屏風	6扇 (緣綾幙)
大唐古樣宮殿畫屏風	6扇 (揩布袋)
大唐古樣宮殿畫屏風	6扇 (揩布袋)
古樣山水畫屏風	6扇 (黃絕袋)
古樣本草畫屏風 1具 兩疊	12扇 (黃絕袋)
子女畫屏風	6扇 (揩布袋)
古人畫屏風 1具 兩疊	8扇 (黃揩袋)
舞馬屏風	6扇 (黃揩袋)
子女屏風	6扇 (揩布袋)
古樣宮殿畫屏風	6扇 (揩布袋)

素晝夜遊屏風 1具 兩疊	12 扇(揩布袋)
鳥毛篆書屏風	6 扇(揩布袋)
鳥毛立女屏風	6 扇(揩布袋)
山水畫屏風	6 扇(黃紬袋)
鳥毛帖成書屏風	6 扇(揩布袋)
鳥書屏風	6 扇(緣紬袋)
百濟畫屏風	6 扇(黃紬袋)
古人宮殿屏風	6 扇(揩布袋)
古人畫屏風	6 扇(揩布袋)
山水夾纈屏風 12 疊 各	6 扇(揩布袋)
菴室草木鶴夾纈屏風 7 疊 各	6 扇(揩布袋)
麟鹿草木夾纈屏風 12 疊 各	6 扇(揩布袋)
鹿草木夾纈屏風 5 疊 各	6 扇(揩布袋)
鳥木石夾纈屏風 9 疊 各	6 扇(揩布袋)
鷹木夾纈屏風 1 疊	6 扇(揩布袋)
鷹鳥夾纈屏風 4 疊	6 扇(揩布袋)
鷹鶴夾纈屏風 1 疊	6 扇(揩布袋)
古人鳥夾纈屏風 4 疊 各	6 扇(揩布袋)
鳥草夾纈屏風 10 疊 各	6 扇(揩布袋)
騰纈屏風 10 疊 各	6 扇(揩布袋)
白練菱大枕 1 枚(著夾纈羅帶 3 條)	
御軾 2 枚(紫地鳳形錦 1 枚長班錦)	
紫檀木畫挾軾 1 枚(著白羅褥)	
御床 2 張(黑地錦端疊, 褐色地錦褥 1 張, 緣紙袷履 1 條)	

B. 種種藥帳(756년 6월 21일)

60 종의 한약

C. 屏風花氈帳(756년 7월 26일)

屏風·花氈·線鞋·銀薰爐·鎮石·箸 등 80 점

D. 大小王眞跡帳(758년 6월 1일)

왕희지부자의 진적서 1 권

E. 藤原氏眞跡屏風帳(758년 10월 1일)

眞跡屏風 2 점

이상 이른바 正倉院 寶物의 기점이 된 「獻物帳」의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의 正倉院 寶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正倉院 당국의 한 사람이 공표하고 있다.<sup>5)</sup>

(1). <日常生活用品(調度品)>

廚子, 屏風, 毛氈, 椅子, 床, 鏡, 軾, 挾軾, 火舍, 薰爐, 几, 箱, 櫃,

(2). <文房具>

筆, 墨, 硯, 紙, 軸, 帙, 尺, 書几, 刀子,

(3). <樂器·樂具>

琴, 埙, 篳, 七絃樂器, 琵琶, 五絃琵琶, 阮咸, 篳篥, 尺八, 橫笛, 笙, 竽, 簫, 鼓  
胴, 方磬, 伎樂面, 樂服

(4). <遊戯具>

碁局, 碁子, 雙六局, 雙肉子, 雙六頭, 投壺, 同箭, 彈弓

(5). <佛具>

佛像型, 佛座, 佛龕, 天蓋, 幡, 銀鉢, 盤, 銀壺, 水瓶, 磬, 袈裟, 錫杖, 如意, 塵尾,  
拂子, 念珠, 三鈷, 柄香爐, 花龕, 香印座, 獻物箱, 獻物几

(6). <年中行使品>

子日手辛鋤, 目利빛자루, 卯杖, 百索縷軸, 乞巧奠의 바늘과 실, 八勝殘缺, 撥鏤尺,

(7). <武器·武具>

大刀, 手鉞, 鉞, 弓, 鞞, 胡籥, 箭, 馬鞍, 佳甲殘缺

(8). <服飾品>

冠, 袍, 襖子, 半臂, 背子, 裊襠, 袴, 接腰, 裳, 衫, 汗衫, 前裳, 襪, 早袖, 腕貫, 帶,  
履, 笏, 杖, 佩飾, 櫛, 梁織

(9). <飲食器·廚房具>

碗, 加盤, 접시, 鉢, 壺, 杯, 高坏, 瓶, 箸, 匙, 鉗, 提子, 胡樽, 식칼

위의 일람표에는 「獻物帳」에 있는 大奩, 大枕(以上 일상 생활품), 劍·橫刀·佩刀, 杖刀·甲(이상 武具), 鞋(服飾品), 그리고 笑子·玦·合子·鎮石 등이 제외되어 있다.<sup>6)</sup> 이렇게 「獻物帳」의 물품가운데 제외된 것도 있으나 위의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後世에 추가된 물품의 종류가 훨씬 많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물품의 종류의 증감보다 물품의 양의 증감에 시대적 차이가 훨씬 잘 나타나고 있다. 즉 5권의 獻物帳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은 700여점에 이르나 현존하는 것은 100여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正倉院에 현존하는 물품은 지금까지 정리된 것만 하여도 8000여점에 이른다고 하니 「獻物帳」의 것 100여점을 제외하고도 8000여점은 後世에 正倉院에 들어 온 물품임을 알 수 있다. 平安時代까지만 해도 「寶物」은 감소할 뿐

5) 關根眞隆, 『正倉院への道』, 1991, p.9.

편의상 香料·漢藥·工匠具·書籍 등을 여기서 제외하였다.

6) 下線부분은 獻物帳에 있는 물품이다.

새로운 보물의 대량적인 納入이 없었다. 이 시기는 「獻物帳」에 기록된 「帳內御物」이 많이 감지되어지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예를 들면, 1116년에도 대량 納入되고 元祿 10년(1697) 鎌倉時代의 大佛開眼 때도 많은 물품이 正倉院에 納入되었다. 正倉院에 현존하는 물품 가운데 年代가 기입된 것 중에는 1413년의 것도 있으며 1603년 徳川家康이 櫃 30 개를 새로 만들어 묶은 櫃와 바꾸기도 하였다.<sup>7)</sup>

기록이 확인된 正倉院 소장품의 年代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年 代	大刀	弓	鉾(창)	鞍	毛氈	3彩 2彩등의陶器	유리器
756 天平勝寶 8	100	100	0	0	67 枚	0	0
787 延曆 6	·	·	·	·	·	·	0
793 延曆 12	3	0	0	0	0	0	0
811 弘仁 2	·	·	·	·	0	·	0
1117 齊衡 3	·	·	·	·	·	(56)	0
1193 建久 4	27	2	1	7	9 枚분	0	24 개
1602 慶長 2	·	·	·	·	·	·	3
1612 慶長 17	61	?	?	10	33	0	·
1693 元祿 6	62	弓있음	2 束	10	53	17 개 이상	5
1836 天保 4	·	·	·	·	66 + 2 枚분	·	6
1836 天保 7	62	20	33	10	· 47	·	·
1872 明治 5	56	27	37	10	54	30	6
1904 明治 37	·	·	·	·	45	57	6
1977 昭和 52	49	27	33	10	45	57	6

武器인 大刀나 弓도 「獻物帳」의 것은 거의 없어지고 현존하는 것은 後世에 正倉院에 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正倉院에는 현재 68 점의 陶器가 있으며, 그 가운데 須惠器가 11 점, 3彩·2彩·緣釉·黃釉·白釉 陶器가 57 점이다. 특히, 오늘날 인기가 높은 正倉院 3彩 등의 色釉 陶器는 江戸時代가 되어 비로서 正倉院에 들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正倉院의 유리器는 적어도 奈良時代에는 正倉院에 소장되지 않았고, 平安時代 末期에 納入된 것이며, 그 가운데 2 개는 1872년 이후부터 1904년 이전 사이에 紺琉璃馬山杯와 白琉璃鉢의 2 개 유리기는 자취를 감추고 새로이 緣琉璃 12 曲長杯와 白琉璃杯가 모습을 나타냈다.<sup>9)</sup>

正倉院관계 문서에 의하여 江戸時代에 들어와서도 속속 물품이 正倉院에 들어왔으며, 100 년도 되기전에 明治時代에도 새로운 물품이 슬그머니 正倉院에 들어와 보관된 사례도 있는

7) 註 2의 책 p.193, p.184.

8) 註 2의 책에서 本人이 정리한 것이다.

9) 註 2의 책 p.214, p.215.

것이다.<sup>10)</sup> 正倉院 소장품에는 江戸時代의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더욱 새로운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正倉院의 보물 하나 하나를 조사하여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느 때에 正倉院에 들어왔는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sup>11)</sup>

### III. 正倉院 소장품에 대한 日本政府의 태도와 製作國 확인법의 모색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正倉院에 현존하는 소장품 9000 여점은 대부분 東大寺에서 사용한 것이거나 가진자로부터의 獻納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政府는 이러한 물품을 文化財로 취급하지 않고 王室財産(御物)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도 문화재를 관리하는 文化廳이 아니라 日本 王室관계의 行政을 담당하는 宮內廳으로 하여금 관리시키고 있다. 또 日本政府는 1년에 한번씩 奈良博物館으로 하여금 극히 일부분(70 여종)만의 소장품을 전시하여 일반의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 소장품의 관람이나 조사는 물론 사진자료의 촬영도 금지하고 있다. 이 사정은 日本 考古學者조차도, 王陵은 물론 王陵의 候補地에의 出入이나 觀察 등도 엄금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sup>12)</sup> 오직 일본정부에서 임명한 극히 소수의 연구원으로 하여금 소장품을 조사 연구하게 하고 있어서 이들의 報告文이나 報告書가 正倉院의 소장품에 관한 유일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

또, 正倉院의 현존소장품은 奈良時代의 것 보다도 後世의 것이 대부분인데도 그러한 조사 결과를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아 외국의 학자들은 거의 100% 正倉院 소장품을 7·8世紀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sup>13)</sup> 물품의 종류별 공식통계도 행한일이 아직 없으며 더구나 그 물품이 언제 어떻게 정창원에 들어왔는지에 대하여는 더욱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물품의 공식통계의 기피도 그러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일본정부가 아직도 正倉院의 자료 정리가 끝나지 않아 정리중이라는 발표는 더욱더 사람을 어리둥절케 한다.

「東大寺獻物帳」에 기록된 일부의 소장품(寶物)을 근거로하여 그밖에 後世에 들어온 물품까지도 모두 奈良時代부터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一般의 正倉院觀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일본정부가 조성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日本政府나 正倉院 당국자는 일반 학자의 양심적 연구에 대하여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양심적인 한 일본학자가 正倉院 文書を 취급하면서 寶物을 점검하여 현물을 만든 기술·형태 혹은 正倉院에 언제 들어왔는가를 하는 기록 등에서 약간 조사한 결과를 정리·발표하여 내놓았다가 正倉院 사무소 당국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일도 있는 것이다.<sup>14)</sup> 正倉院 소장품의 조사 연구를 왜곡 저지하는 것은 비단

10) 註 2의 책, p.194.

11) 註 8의 책, p.226.

12) 崔在錫, 日本列島の古墳群과 韓國關係史 『정신문화연구』 47, 1992.

13) 註 2의 책, p.262.

14) 註 8의 책, p.226.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일본학자도 대부분 동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古代 韓日關係史의 연구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이다.<sup>15)</sup>

우선, 이들은 統一新羅의 유물이 없으면 일단 대개의 正倉院 소장품은 統一新羅의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논리를 전개한다. 이 경우 그러한 正倉院 물품은 대부분 日本에서 제작된 물품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櫃나 大刀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新羅에서 正倉院의 것과 類似 내지 동일한 것이 발굴되는 경우에도 그들의 논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新羅에서 유사한 물품이 존재하건, 없하건에 관계없이 정창원의 소장품은 日本製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거울과 剪子の 경우를 살펴보자.

경상남도출토...호암미술관 소장의 國寶 140 호의 螺鈿鏡과 正倉院 소장의 螺鈿鏡은 天然寫眞上으로는 그 材質·意匠·圖案 등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日本의 良心的인 學者라 할 수 있는 한 사람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 正倉院에 있는 螺鈿鏡과 제일 유사한 것을 든다면 오히려 韓國의 鏡(한국경상남도출토...호암미술관소장)이다. 이것을 新羅製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sup>16)</sup>

즉 그는 위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호암미술관 소장의 螺鈿鏡은 新羅製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新羅 것과 正倉院 것의 관련성을 애초부터 제기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다. 또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慶州의 雁鴨池에서 다른 新羅遺物과 함께 出土된 金銅剪子 是 正倉院의 金銅剪子和 材質·形態 등에 있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正倉院 사무소의 한 연구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B. 金銅剪子 1枚의 유사품이 경주의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다고 하여 정창원의 그것이 新羅製라고 말할 수 없다.(中略) 쌍방(日·韓)이 각각 유사한 것을 제작 사용한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sup>17)</sup>

즉 위의 주장에 나타나 있는 바와같이 정창원의 金銅剪子和 同一類似한 金銅剪子가 경주에서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新羅의 것이 日本(奈良)으로 간 것이 아니라 韓國·日本 두나라가 유사한 것을 제작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창원의 것과 동일·유사한 물품이 新羅에서 출토되더라도 일본학자들은 이것을 新羅의 것으로 볼려고 하지 않음과 동시에 日本 것도, 新羅 것도, 모두 唐나라 것을 祖型으로하여 각기 두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15) 崔在錫, 『日本古代史研究批判』, 1990 참조.

16) 東野治之, 『正倉院』, 1988, p.43.

17) 關根眞隆, 『正倉院への道』, 1991, p.213.

C. 新羅 出土의 것이 唐製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가령 新羅製라 하더라도 日本·新羅 公同의 모범이라는 祖型이 唐에 있었던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sup>18)</sup>.

正倉院의 것과 유사 동일한 물품이 新羅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동일한 것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일본학자들은 두 물품의 양국간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학자의 태도는 佐波理의 加盤·접시나 花氈에 대한 해석에도 나타나 있다.

D. 佐波理의 加盤·접시 등이 대량으로 전해져 객관적으로 보아 朝鮮半島系처럼 생각되지만 그것들이 모두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sup>19)</sup>

E. 正倉院의 碗도 그 때는 中國 내지 朝鮮 근처에 와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F. 色氈·花氈에 新羅의 符箋 같은 것이 붙어 있는 예가 2점 있다고 하여 정창원의 色氈·花氈이 모두 新羅產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sup>21)</sup>

현재 우리나라에는 新羅의 加盤·접시 등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그 명칭이나 재질·형태면에 있어서 정창원의 佐波理의 加盤 접시 등은 新羅時代의 것과 유사하다. 이리하여 일부 일본학자들은 이것들이 新羅에서 들어 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위의 주장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재질이나 技法·意匠 등이 동일한 여러개의 花氈·色氈이 존재한다면 한 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개의 花氈중 新羅의 符箋이 붙은 것이 2점만 있다고 하여 그것만 新羅의 것이라고 하는 일본학자들의 주장을 위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위의 주장들(A·B·C·D·E·F)에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어떤 주장도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에서 주장된 것은 하나도 없다. 正倉院과 그 소장품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과 일본학자들의 歪曲된 연구태도로 말미암아 正倉院 소장품에 대한 學問的 연구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들릴지 모른다. 더욱이 일본정부에 의한 正倉院 소장품에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일본 고고학자에게조차도, 특히 「王陵」과 「王陵候補地」에의 出入 觀察 금지로 王陵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일본정부가 統制를 가한다 하더라도 次善의 방법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첫째 統一新羅와 日本과의 관계, 둘째 新羅佛敎와 奈良佛敎와의 관계, 셋째 당시의 海上權을 장악한 나라의 규명, 넷째 新羅·唐·日本 3國 특히 新羅와 日本과의 美術工藝水準, 다섯째 당시 新羅의 輸出品과 國信物의 내용과 이것들에 대

18) 東野治之, 『遺唐使と正倉院』, 1992, p.213.

19) 註 19의 책, p.225.

20) 註 18의 책, p.11.

21) 註 19의 책, p.213.

한 東亞圈의 평가, 여섯째 당시 일본의 수입품과 수출품의 내용과 수준 등에 의하여 正倉院 소장품의 제작국은 어느정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맺 는 말

지금까지 正倉院의 由來와 管理, 正倉院 소장품의 내용·종류 및 수량의 增減, 正倉院 소장품에 대한 日本政府의 統制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 결과 正倉院의 현존품 가운데 奈良時代의 「獻物帳」의 물품은 100 여점에 불과하고 나머지 8000 여점은 奈良時代부터 江戸時代까지의 물품임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日本政府의 통제로 말미암아 正倉院의 소장품에 대한 현물조사는 不可能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물조사에 의하여 그 재질·양식·기법·모티브 등의 비교연구를 필수로 하는 학문이 아닌 이상 그 물품들의 國籍에 관한 연구법은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